

“Are we nearly there?” “How long to go before we arrive?” These are questions that, I’m sure, every parent can identify with. They are the sorts of questions that often drift across from the back seat during a car trip. Indeed, the more eagerly anticipated the destination, the more regularly they drift across from the back seat. I can’t remember my children ever asking these questions on the way to the dentist. They asked them a lot on the way to the beach or a holiday destination. “거의 다 왔어요?” “도착 하려면 얼마나 남았어요?” 라는 질문들은 아마 모든 부모님들에게 익숙한 질문들일 것입니다. 보통 차를 타고 여행을 갈 때 뒷좌석에서 들려오는 질문들이지요. 아이들이 더 가고 싶은 곳으로 갈 때에는 이 질문을 더 자주 듣게 됩니다. 치과로 향할 때 저희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했던 기억은 없습니다. 바닷가나 다른 여행지로 놀러갈 때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In the first two Combined Services for 2017, we have been thinking about our future hope as Christians – the vibrant, wonderful future God has in store for us. It is a glorious hope of being an imperishable, Spirit-controlled person in a new, perfect creation in which all the trials we presently face will be over. It is a firm and secure hope won for us by Jesus’ death and resurrection on our behalf. With such a wonderful destination to be looking forward to – a new creation created for, ruled over by and united under Christ – we can’t help but ask, “Are we nearly there yet?” “How long to go?”

2017 년도 첫 두 연합예배에서 우리는 크리스천들로서의 희망 –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활력 있고 아름다운 미래 – 에 대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현재 마주하고 있는 시련들이 없는 새롭고 완벽한 세상에서 성령에 이끌려 사는 불멸의 존재가 되는 아름다운 소망입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확실하고 변하지 않는 소망입니다. 이렇게 기대할만한 아름다운 목적지 – 예수님을 위해 만들어 지고 예수님에 의해 통치되고 연합되는 새로운 세상 – 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얼마나 더 가야 되나요?”

The New Testament describes the return of Jesus Christ – his Second Coming – as the definitive event that will usher in this future. It is with Jesus’ return that the final, definitive judgment of humanity will occur and the new heavens and the new earth will arrive. The apostle Peter gives one of the clearest descriptions of this climactic event in the passage we read from 2 Peter:1-13. Three key aspects of Jesus’ return are apparent from this passage.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를 미래로 안내 할 최종적인 사건이라고 설명 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 심판이 있을 것이고 새로운 하늘과 땅이 열릴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3 장 1-13 절에서 이 사건에 대해 가장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세가지 볼 수 있습니다.

1. An Inevitable Return

Perhaps the key truth Peter is wishing to stress in this passage is that Jesus’ return will happen. It seems that some people were doubting this at the time of Peter’s writing. He describes how “in the last days” scoffers and sceptics will claim that Jesus won’t return at all. The “last days” is a New Testament phrase used to denote the time period between Jesus’ first appearance and his return. The “last days” period commenced at Pentecost when Jesus’ disciples received the Holy Spirit (Acts 2:14-17) and they will conclude on the last day of history when Jesus returns. A term like “last days” sounds as if there aren’t going to be many days within this period of history. When you see a sign saying, “Hurry! Sale! Last days!” that usually means you better get in quick before the Sale ends and the bargains are gone. But it’s been around 2,000 years since the New Testament’s “last days” officially started. How long will these “last days” last? And so some people in Peter’s day were saying that Jesus wasn’t coming back at all and it was silly to think that he was. You don’t have to try very hard to find similar scoffers today. If at some work function or neighbourhood party, you

(2 Peter 3:1-13; 1 Thessalonians 4:13-17; Matthew 25:1-13)

casually drop into the conversation that Jesus Christ will return, you can be pretty sure that you'll discover some scoffers very quickly.

아마도 베드로가 강조하고 싶었던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글을 썼을 때 몇몇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할 것에 대해 설명 합니다. 신약에서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처음 나타나셨을 때부터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 사이의 기간을 이야기 합니다. “말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성령 강림절에 시작했고 예수님께서 돌아오시는 역사의 마지막 날에 끝날 것 입니다. “말세”라는 단어는 이 기간이 짧은 기간일 것 같이 들립니다. “Hurry! Sale! Last days!”라고 써져 있는 것을 보면 보통 세일이 끝나서 놓치기 전에 빨리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신약의 “말세”가 시작 된지 거의 2000 년이 되었습니다. 이 “말세”는 언제까지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때의 사람들 중 몇몇은 예수님께서 아예 재림하지 않으실 것이고 돌아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보 같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즘에도 비슷하게 조롱하는 자들을 찾기 쉽습니다. 직장 동료들이 모인 자리에서, 또는 동네 파티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을 하면 이 조롱하는 사람들을 금방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Peter's response to these sceptics is threefold. First, he points out that Jesus' return is a sure thing based on the simple fact that God has said it is going to happen. And what God says happens. Peter reminds us that God formed the entire world simply by speaking (v.5). God's word is powerful enough to achieve whatever he says. We can never guarantee that we will keep appointments because things may happen beyond our control which prevent us from keeping our undertaking to be somewhere at a certain time – things such as a meeting running late, or our train being delayed or our car breaking down or getting caught in heavy traffic. But nothing is beyond God's control. He is good, faithful and powerful and nothing is going to stop him keeping his promise about the future – indeed it's God himself who brings the future into being. God has promised that Jesus will appear again - and he will. You can be sure of it.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베드로의 대답은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다는 단순한 사실을 근거로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5 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이룰만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예를 들어 회의가 늦어지거나, 기차가 연착 했던가, 차가 고장 나던가 차가 많이 막히는 등의 상황 때문에 언제나 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는게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시고, 신실 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에게 하신 미래의 약속을 꼭 지키실 것입니다 - 미래를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거라고 하셨고 -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겁니다. 확신 하셔도 됩니다.

Peter's second compelling reason for the inevitability of Jesus' return is that God has already judged the world once before, at the time of Noah and the flood (v.6). In other words, God has a track record for dealing with sin! So why would we doubt that he'll do it again? God's sense of holiness, righteousness and justice means that he will not let sin go unpunished forever. Jesus will return, judgment will be handed down and the new creation will be ushered in. The very character of God makes it inevitable.

베드로가 설명한 예수님이 돌아오실 수 밖에 없는 흥미진진한 두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에 세상을 이미 한번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6 절).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신 적이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성하심, 의, 그리고 공의로우심을 보면 언제까지나 죄를 정죄하지 않고

(2 Peter 3:1-13; 1 Thessalonians 4:13-17; Matthew 25:1-13)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며 새로운 세상이 들어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 때문에 이 사건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The third reason Peter gives for the inevitability of Jesus' return is that God has only delayed it thus far out of loving mercy. It isn't that God has forgotten about Jesus' return. It's not that he has changed his mind or that he can't decide how to send Jesus back. The reason Jesus has not returned yet is because God is patient and doesn't want anyone to perish (v.9). In other words, time doesn't matter much to God. People matter to God. For this reason, God is holding off Jesus' appearing and the arrival of the new creation so that more people might have the chance to repent and be ready for it. His deep desire is for many to be saved. God's loving patience actually raises some interesting implications for us, doesn't it? If the very reason God has delayed Jesus' return is so that people might be saved, it's not hard to guess what we, his people, should be doing – surely we should be telling people about Jesus! That's the mission God has given us.

베드로가 말한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수 밖에 없는 세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늦추신 유일한 이유는 사랑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 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을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바꾸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어떻게 돌려보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돌아오지 않으신 이유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9 절).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는 시간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재림을 늦추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랑의 오래 참으심은 우리에게 흥미로운 것을 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을 늦추신 이유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 이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깨닫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2. An Inescapable Return

Wherever you are, whatever you are doing and whoever you are with, you will not miss Jesus' return. Peter tells us that all things will be destroyed on that day (v.11). Everything. It will be a massive cosmic event, which will affect everyone you know, and during which everything will vanish in a roar. The apostle Paul makes a similar point in the passage we read from 1 Thessalonians 4:13-17. The church in Thessalonica was concerned about people who had already died, thinking that those people might miss ou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creation. But Paul explains that Jesus' return will be such an inescapable event that even those who have died will be raised so as to not miss it. The Lord will descend "with a loud command, with the voice of the archangel and with the trumpet call of God" and the dead in Christ will rise first – to be joined in the clouds to by those in Christ who are still alive and to meet the Lord in the air. The return of Jesus will be an inescapable event – you do not know a single person, living or dead, who will not be affected by it.

누구든지, 무엇을 하고 있던지, 누구와 함께 있던지 여러분은 예수님의 강림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날에 모든 것이 파괴될 것이라고 베드로가 말 하고 있습니다 (11 절). 모든 것.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큰 소리로 모든 것이 떠나가는 엄청난 사건이 될 것 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4 장 13-17 절에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이 피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미 죽은 자들도 일어나 놓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강림하실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 – 그리고 살아 남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사람들도 구름 속에서 함께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강림은 피할 수 없는 사건일 것입니다 – 이 사건의 영향을 받지 않을 사람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2 Peter 3:1-13; 1 Thessalonians 4:13-17; Matthew 25:1-13)

This passage from 1 Thessalonians brings us to a related and reasonable question: where are Christians who have already died? If our ultimate future is to be in a new physical creation, what about all those Christians who have died before the new creation has arrived? Where are they now? Several New Testament passages suggest that deceased Christians are with Jesus now, waiting for the new creation to arrive. For example, Jesus promises one of the criminals crucified along side him that that very day he would be with Jesus in paradise (Luke 23:43). Similarly, the apostle Paul speaks of departing this life in order to “be with Christ” (Philippians 1:23). It would therefore seem that between our death and bodily resurrection, we are consciously in the presence of Christ.

데살로니가전서의 구절은 연관 있고 합리적인 질문으로 이릅니다: 이미 죽은 크리스천들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의 최종적인 미래가 새로운 세상에 사는 것이면 이 새로운 세상이 오기 전에 죽은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지금 그들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신약에서의 여러 구절에서는 죽은 크리스천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고 새로운 세상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듯 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함께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에게 그 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라고 약속 하셨습니다 (눅 23:43). 또 비슷하게 사도바울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빌 1:23).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과 육체적인 부활의 사이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To be honest though, the New Testament doesn't seem very interested in our intermediate state between death and resurrection. It is much more interested in our eternal life after our resurrection. For this reason the focus of the New Testament is not on those who have died (other than to reassure us that they won't miss anything) but on those who are still living. The focus of the New Testament is that you and I should be ready for the inevitable, inescapable and cataclysmic return of Jesus. And we need to be especially ready because, when it does occur, Jesus' return will also be unexpected.

하지만 사실 신약은 죽음과 부활 사이의 상태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신약은 부활 뒤의 영생에 더 많은 관심을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초점은 이미 죽은 사람들에 맞춰져 있지 않고 (그저 그들이 아무것도 놓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뿐)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신약의 초점은 여러분과 제가 피할 수 없고 빠져나갈 수 없는 엄청난 예수님의 강림을 위한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더 준비 되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강림은 예상치 못할 때에 일어난다는 것 때문입니다.

3 An Unexpected Return

When a thief strikes, stealing a car from someone's driveway or a purse from someone's handbag or electronic goods from someone's home, it's always unexpected, always sudden, always surprising. The apostles Paul and Peter both describe the return of Jesus as like a thief in the night (1 Thessalonians 5:2; 2 Peter 3:10). This image tells us that even though we know with certainty that this event is coming we don't really know exactly when it will arrive. For this reason the New Testament writers urge us to be ready for it. Paul urges the Thessalonian church to “be alert and self-controlled”. In other words, be prepared – be primed and waiting for it. Nobody makes this point more powerfully than Jesus himself. After telling the parable of the wise and foolish virgins, he concludes, “Therefore keep watch, because you do not know the day or hour” (Matthew 25:13). The testimony of the New Testament is pretty clear. The return of Jesus and the arrival of the new creation will happen suddenly and at any moment. So make sure you are ready for it!

도둑이 와서 차를 훔치거나, 누군가의 가방에서 지갑을 훔쳐가거나 또는 누군가의 집에서 전자제품을 훔쳐 갈 때 언제나 예상치 못했을 때, 갑자기 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둘 다 예수님의 강림을 밤에 도둑 같을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살전 5:2,

(2 Peter 3:1-13; 1 Thessalonians 4:13-17; Matthew 25:1-13)

벤허 3:10). 이 표현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지만 언제가 될 것인지 정확하게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저자들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라고 권고합니다. 다른 말로 준비 되어있으라 - 준비하고 기다리라 - 는 것입니다. 이 포인트를 예수님보다 더 강조하신 분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련한 처녀들과 슬기 있는 처녀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 하신 뒤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 25:13)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의 증언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새로운 세상이 오는 것은 갑자기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준비되어 있길 바랍니다.

In Jesus' parable, the wise virgins were those who thought through the possibility of the bridegroom being delayed and so took extra oil for their lamps. They planned ahead, looked to the future and made their decisions accordingly. Wise waiting for Jesus' return is the same.

예수님의 비유에서 슬기 있는 처녀들은 신랑이 늦게 올 수도 있다는 상황을 대비해 그릇에 여분의 기름을 담아 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내다보고 그에 따른 결정을 내려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혜롭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The wise follower of Jesus looks to the future, appreciates their eternal inheritance is in the new creation and therefore shapes their plans and priorities accordingly. They are focused and clear-minded about the future. The apostle Peter describes it this way in his first letter: “Therefore, prepare your minds for action; be self-controlled; set your hope fully on the grace to be given you when Jesus Christ is revealed” (1 Peter 1:13). Waiting wisely therefore involves training our minds and focusing our thinking so that our behaviour is appropriate. For example, if you think it's really important to wear certain clothes to an upcoming event and you haven't got those clothes, then certain actions will follow – you will go out and buy appropriate clothes. That is because thinking shapes our behaviour. That's why Paul urges the Roman Christians “not to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but to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Romans 12:2).

예수님을 따르는 지혜로운 자들은 미래를 보고, 그들의 영원한 재산은 앞으로 올 새로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그들의 계획과 우선순위를 이것에 맞춥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해 집중되어 있고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의 첫 편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벧전 1:13). 지혜롭게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훈련 하여 우리의 행동이 적절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여러분이 다가오는 행사에 꼭 입고 가야한다고 생각하는 옷이 없으면 이렇게 행동하실 것입니다 - 나가서 적절한 옷을 살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의 크리스천들 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롬 12:2) 라고 권고하는 것 입니다.

How do we renew our minds so as to keep our future hope at the forefront of our thinking? Well, prayer is a good start. One of Paul's prayers for the Ephesian Christians was that they would have “the eyes of (their) heart.....enlightened in order that (they) may know the hope to which he (God) has called (them), the riches of his glorious inheritance in the saints” (Ephesians 1:18). Paul wanted the Ephesians to understand their hope so that they would then be equipped to make the best life choices.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미래의 소망이 언제나 우리 생각의 중심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좋은 시작은 기도입니다. 에베소의 크리스천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 중 하나는 그들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위함이었습니다 (엡 1:18).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이 그들의 소망을 이해하여 살면서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길 바랬습니다.

(2 Peter 3:1-13; 1 Thessalonians 4:13-17; Matthew 25:1-13)

Reading God's Word regularly and thoughtfully is another helpful way to keep hope at the forefront of our minds. God's word expands our horizons and brings our thinking into line with his. In Hebrews, the word of God is described as "sharper than any double-edged sword....(penetrating) even to dividing soul and spirit, joints and marrow; it judges the thoughts and attitudes of the heart" (Hebrews 4:12). This is a good thing. We want God's Spirit to apply his word into our lives, cutting away anything that might distract us from Jesus Christ and the hope he gives us. Being disciplined at reading the Bible will therefore help us wisely keep our thoughts focused on our hope.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신중하게 읽는 것도 소망이 우리 생각의 중심이 되게 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히브리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 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히 4:12).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주시는 소망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잘라 내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훈련이 되면 소망이 우리 생각의 중심이 되게 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The problem is that every day we are being bombarded with the world's way of thinking. The mass media, advertising agencies, even family and friends, are all filling our minds with ideas, desires and priorities that are focused on this creation and not the new creation. It has been estimated that the average adult is exposed to about 360 advertisements each day from TV, radio, the internet, newspapers and magazines. We are naïve if we think that doesn't affect us! Unless we are taking substantial blocks of time and energy to think and talk about the things of God, our minds will simply be overrun by the flood of materialistic, individualistic and pleasure-seeking ideas that our culture endlessly promotes.

문제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세상적인 생각 방식이 던져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중매체, 광고회사, 친구들과 가족까지도 우리의 생각을 새로운 세상이 아닌 지금 이 세상에 관점을 둔 생각들, 욕심, 그리고 우선순위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보통 성인이 하루에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신문지 그리고 잡지를 통해 약 360 개의 광고를 보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순진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에 대한 생각과 이야기를 하는 데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금방 우리의 문화가 끊임없이 추구하는 물질주의적, 개인주의적, 그리고 쾌락 추구 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고 말 것입니다.

Waiting wisely for the new creation, for the return of Jesus, involves clarity of focus and sharpness of thinking. It involves spending time in the Scriptures and aligning our minds with the mind of Christ. It involves thinking beyond this world to the world to come. And it affects every area of our lives – how we treat our spouses, how we raise our children, how we choose our friends, how we weigh up ideas and make decisions, how we spend our money, how we have conversations, how we use our free time. In all these things we ask ourselves, "How is this action shaped by my hope in eternity and the new creation?" I wonder, are you living each day in the light of your Christian hope? Are you ready for Christ's return? Are you living wisely as you wait for that great day?

새로운 세상과 예수님의 재림을 지혜롭게 기다리는 것에는 분명한 초점, 그리고 예리하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성경을 보며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나가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 이 세상을 넘어서 앞으로 올 새로운 세상을 생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 – 우리의 배우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지, 친구들을 어떻게 고르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대화를 어떻게 나누는지, 자유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 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 자신에게 "영생과 새로운 세상을 향한 나의 소망이 지금 이 행동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매일

(2 Peter 3:1-13; 1 Thessalonians 4:13-17; Matthew 25:1-13)

크리스천의 소망 안에서 살아가고 있나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 엄청난 날을 기다리며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나요?

Amen

Prepared by Rev. Grant Lawry, Canterbury Presbyterian Church, Canterbury, Melbourne, Australia for use of the Canterbury congregation.